

그날의 부끄러운 기억들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정년 광주는 버림받은 땅인가” 이것은 37년 전 내가 쓴 ‘거북장 살롱’ 화제 사건 기사의 리드(lead)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신문에 실리지 못했다. 검열에서 잘렸기 때문이다. 거북장에 붙어 난 것은 5·18 살육의 피비린내가 채 가시기도 전인 1980년 6월6일 새벽이었다. 이 화제로 당시 스톤세 명이냐 숨었느냐 난 그때 그 슬픈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행간(行間)에 ‘5·18’을 넣고 싶었다. 하지만 검열 당국은 내 의도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여지없이 가위질을 했던 것이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계엄하에서 기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 줄의 진실이라도 더 내보내려 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진실이 새 나가는 것을 막아 보려 했던 시절. 그들이 사전 검열을 통해 ‘제5공화국 출범’이라는 신문기사 제목의 ‘출범’이라는 단어마저도 삭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은 유명한 일화다. ‘출범’을 삭제하라니-. 어리둥절해 있는 우리에게 검열 담당관은 새 시대가 열리는 이

쁜 날에 호랑이(범)가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당시 검열을 맡았던 보안사 부사관의 무식(無識)이 빛은 해프닝이었다. ‘무등산은 알고 있다’ 이는 항쟁 기간 동안 불가항력적으로 신문 발행을 하지 못하다가 우리 젊은 기자들의 검열 거부와 신문 제작거부 속에서도 속간할 수밖에 없었던, 1980년 6월2일 자 광주일보(당시 이름은 전남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이 제목도 원래는 ‘무등산은 알고 있다’ 위대한 광주 시민정신’이었으나 뒷부분이 삭제됐다. 그들의 눈에는 ‘시민정신’이란 단어가 못마땅해 잘라 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함축적인 제목으로 오히려 잘된 선택이었다. 사실 그날의 참상이야 우리 모두 보았으니 ‘무등산은 알고 있다’라는 한마디 외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 것인가.

그래도 ‘무등산은 알고 있다’

오늘, 오랜만에 어느 후배의 빛바랜 시집을 꺼내 읽는다. 그동안 몇 번 이사를 하며 많은 책을 버렸는데도 30년 전에 나온 이 시집은 다행히 책장에 남아 있었다. 임동환의 ‘매장시편’이다. 나중에 그가 국문과 후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당시만 해도 안면이 없었던 이 젊은 시인의 시에 크게 매료된 나는, 그의 시집을 몇 권 구입해서 주위의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던 기억이 난다. 다시 읽어 봐도 그의 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쉽

게 하기 힘든 고백과 광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처절한 부끄러움이 드러나 있다. 나는 그의 시에서 거울 속에 늘 자신을 비춰 봤던 윤동주를 보았다. 아울러 명색이 기자랍시고 허둥지둥 뛰어다녔으며 계엄군에 쫓겨 마냥 도망 다니기에 바빴던 부끄러운 나의 모습도 보았다.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당돌하게 대들던 어느 여고생의 모습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다. 그때 겨우 2년차에 접어든 ‘벵아리 기자’였지만, 대학생들의 전유물이던 시위에 여고생이 등장한 것은 큰 뉴스거리일 것이라는 것쯤은 알았었다. 당연히 “어느 학교에 다니는 누구냐?”고 물었는데 오히려 되돌아온 것은 어린 소녀의 앙칼진 반문(反問)이었다. “암것도 쓰지 못할람서 이름은 알아서 뭐 할라고 물어 보요?” 난 그때 할 말을 잃었다. 부끄러웠다.

‘타타타탕’ 총탄이 쏟아지던 그때의 공포도 잊을 수 없다. 금동 어디쯤이었을 것이다. 한 무리의 군중과 함께 대문이 열려 있던 기와집으로 뛰어 들었다. 마루 밑은 벌써 사람들로 꽉 찼다. 선배 기자(나의갑)와 나는 장독대 뒤에 바짝 엎드려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다.

광주 MBC가 불타던 그날 새벽, 계엄군과 마주쳐야 했던 어절한 기억도 잊을 수 없다. 옛 동구청 뒤 흥안관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우리는 언제 계엄군이 수색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새벽녘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저기 광주경찰서

(현 동부경찰서) 쪽에서 계엄군 한 명이 우리를 발견했지만 쫓아오는 것이었다. 한창 젊었던 우리는 걸모습만 보면 영락없이 대학생이었기에 특히 계엄군의 타깃이 되었다. 멧모르고 뛰어가던 젊은이 한 명이 어둠 속에서 계엄군의 곤봉 한방에 그대로 맥없이 쓰러지던 모습을 목격한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

‘걸리면 죽는다’ 죽자 사자 뛰는데 마침 그 골목 어귀에 있던 단골 식당이 눈에 들어왔다. 다급하게 뛰어들어 식당 안쪽 깊숙한 골방에 숨었다. 그러나 이미 들린 것이 분명했다. 계엄군이 주인아주머니를 다그치는 목소리가 골방에까지 들려왔다. 하는 수 없었던지 아주머니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밖으로 좀 나와야겠구 만이려우.” 우리는 계엄군에게 곤봉으로 몇 대 맞은 후 신분을 제시하고서야 겨우 풀려났으니, 천행(天幸)이었다.

돌이켜 보면 그때는 수첩을 내놓고 취재한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다. 계엄군이나 시위대 양쪽 모두 기자를 적대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몇 안 되었던 우리 기자들과는 달리 외신기자들은 때로 시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기까지 했다.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요즘 들어 부쩍 많이 받는 질문이다. 아마도 영화 ‘택시운전사’

때문일 것이다. 그 질문은 적어도 나에게 ‘한츠 페터가 그 눈부신(?) 활약을 할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책으로 들린다.

영화는 재미있었다. 그동안 나온 5·18 관련 영화를 보면서는 늘 눈시울을 적셔야 했다. 하지만 ‘택시운전사’는 유쾌했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흐른 탓일까. 때때로 아프고 부끄러운 기억을 소환하긴 했지만, 나도 모르게 ‘단발머리’나 ‘제3한강교’를 따라 부를 만큼 무겁지 않아서 좋았다. 사실과 다른 약간의 과장과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택시 추격 액션 등, 거슬리는 장면이 아주 없진 않았어도 그 정도면 그런대로 괜찮았다.

어찌 됐든 새 정부 출범과 영화 ‘택시운전사’의 상영이 맞물리면서 우리는 이제 발표 명령자 색출 등 5·18 진상 규명에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벌써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505보안부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그날 발표 명령이 있었다는 문서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최근 광주를 다녀간 국방부 관계자의 전언(傳言)도 매우 고무적이다. 그에 따르면 얼마 전 기무사(당시 보안사)에 들러 확인한 결과 많은 자료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돼 있는데 상태도 양호하다고 한다. 앞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렇게 묻혀 있는 자료들이 비밀 해제 돼 햇볕을 보고, 드디어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날, 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글을 쓰지 않아도 되리라.

“좋은 이웃은 사드에도 바뀌지 않는다”

한중수교 25주년

주광주중국총영사관 10주년

교포 등 참여 경축 리셉션

한중수교 25주년과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설립 10주년을 맞아 24일 광주시 남구 프라도호텔에서 경축 리셉션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광주와 전남·북지역 기관장, 중국 교포, 유학생 등이 참석해 양국 수교 25주년을 축하하고 교류·협력 활성화를 다짐했다. <관련기사 4면>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쑤시엔위(孫現宇) 총영사는 “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한 이웃나라이며 ‘좋은 이웃은 돈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면서 “중·한수교 25년동안 양국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양국과 양국국민에게 광복할 만하고 실질적이며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 줬고,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 그동안 우호도시상호방문, 경제무역, 문화예술, 인재교육, 의료협력 등 여러 분야별 교류를 매우 활발히



24일 광주시 남구 프라도호텔에서 열린 한·중수교 25주년 기념 및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설립 1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참석자들이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갑섭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쑤시엔위 주광주중국총영사,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박진웅 전북 국제관계대사.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진행하고 있다”면서 “풍부한 성과를 거뒀고, 양국간 협력관계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2002년부터 중국영사관 유치 활동을 벌였으며, 2005년 외교통상부로부터

영사사무소 설립을 승인받았다. 2007년 총영사관으로 승격, 광주 남구 월산동에 문을 열었다. 서울에 중국대사관이 있으며 총영사관은 부산, 광주, 제주에 있다. 광주 중국총영사관은 광주, 전남·북에 거주하는 중국인 보호 및 지원, 중국 입국

비자 발급, 공중업무 처리, 교류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양국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늘 높은 업무수행을 위해 확장 이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지면서 현재 새 청사 신축을 추진 중이다. /오광욱기자 kroh@kwangju.co.kr

오늘 삼성 이재용 선고...삼성 ‘폭풍전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맞아 삼성그룹은 ‘폭풍전야’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구형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삼성은 1심 선고에서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내비치고 있다. 올 초 미래전략실 해체로 ‘삼성 그룹’의 실체는 없어졌으나 사실상 ‘그룹 만형’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관련 팀을 중심으로 일정을 공유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변호인단은 유죄 선고를 나올 경우 항소가 불가 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찌감치 관련 절차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특검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재판부는 이와 달리 철저하게 ‘법정증거주의’에 따라 달리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하면 최장 10일 쉼다

靑 가능성 열어둬

올 추석 연휴 시작 전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10일의 휴일이 이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4일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면서도 “안 될 거 같다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해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인사혁신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하지

만, 인사혁신처는 이날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부처에서 요청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임시공휴일을 미리 지정하면 해외 출국자가 많아져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된다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이 통상 해당일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그 전주 화요일인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지난 20년간 1만2천명이 수강한 명강의

부동산컨설팅과 실전경매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전문)

전남대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MBC-TV 방송국 경제특강 평생교육교과 교육부 장관상 수상, KBC-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건설부 장관세미나 토론 참여,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특강

특전
지난 34년간 특화된 부동산컨설팅과 실전경매 노하우를 전수하며 자격 취득사항, 국가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후 평생지도 합니다.
(공무원, 교직원, 학생 할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정확하게 알아보고 성공전략강의”

강의기간	9월~12월(15주) 각 과정 선착순 50명 마감
장소	조신대 평생교육원 ☎ 230-7700 남부대 평생교육원 ☎ 970-0080 전남대 평생교육원 ☎ 530-3873~4
일시	매주(화요일) 주간: 3시~5시 야간: 7시~9시 매주(수요일) 야간: 7시~9시 매주(목요일) 야간: 7시~9시
수강료	20만원 20만원 20만원

부동산강의 및 컨설팅상담 010-5613-1808(정영수박사)

한마음 공인중개사

- ▶ 동구 산수동 대지 654㎡(약 400㎡)는 도로부지 편입) 푸른길 집, 삼거리 코너(뒷집 작업중), 매매 4억3천만원
- ▶ 나주혁신도시내 택지개발지구 빛가람동 대지 239㎡ 건물 1층 142㎡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300만원 포함, 매매 4억2천만원
- ▶ 무등산 총장사근처 고급전원주택 금곡동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 1층 126㎡ (주택임 정원 잔디밭 700㎡, 주택 뒷편 밭 800㎡, 주택옆 대나무숲 1,300㎡, 주차장 소재) 사정상 급매, 매매가 7억(조정가)
- ▶ 화순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 4층 3동, 객실 37개, 월 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 용자 28억원 포함, 매매가 37억
- ▶ 임대 - 중흥동 중흥초교 옆 건물(전체 리모델링완료) 1층상가 94㎡, 뒷편 창고사용가능, 보1천만 월120만원 2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40만원 3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30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김형호
계림오거리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
남부대학교 삼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